

청소년의 문제 조력을 위한 검사상담과 면담상담 비교

박 성 미[†]
(동서대학교)

A compare analysis on the counseling of testing and interview for problem of adolescent

Sung-Mi PARK
Dongseo University

(Received October 10, 2006 / Accepted November 15, 200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 compare analysis on the counseling of testing and interview for problem of adolescent. The subjects were 20 adolescents who had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10) and a control group(10). To obtain the data, relation of counseling, awareness of self, motivation of self, identity of career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data, ANCOVA, MANOVA were executed. The results were follows. First, the counseling of testing affected significantly on improvement of experimental group's awareness of self, motivation of self. Second, the counseling of testing affected significantly on improvement of experimental group's identity of career.

Key words : counseling of testing, counseling of interview, adolescent

I. 서 론

청소년 상담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상담자는 청소년의 진로선택, 학업문제, 성격문제, 학교에서의 적응 등 실로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동안 청소년 상담에서는 면담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상담과정을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면담은 주로 성인 중심의 주된 상담기법으로서 청소년 상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구본용, 1999; 박병희, 장경준, 신지용, 1996). 이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복합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Krumboltz, 1996), 면담에 의해 문제를 명료화하여 변화를 유도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게다가 청소년들은 상담자를 권

위적인 존재로 생각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담의 효율성마저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일대일 면담상담을 기피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상담을 선호하는 측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이재분, 현주, 박효정,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크고, 그 문제가 복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면담상담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관점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청소년 상담에서는 실제 면담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상담과정을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김미영, 김경하, 전우병, 김시업, 2004; 박성미, 2004).

그러나 면담은 상담자의 전문성 부족이나 편견

[†] Corresponding author : 051-320-1866, psm1994@dongseo.ac.kr

* 이 연구는 2006년도 동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놓칠 수 있으며,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과대 혹은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Watkins, 1990). 게다가 청소년이 자기방어를 하거나 언어적 표현력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 면담에 의존한 청소년의 정보는 결과적으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면담은 청소년 상담에서 중요한 기법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때로 상담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면담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일각에서는 청소년 상담에 행동관찰을 포함하여 검사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안창규, 박성미, 1999; 홍용희, 1999; Zunker, 1994). 이는 행동관찰과 검사가 청소년의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뢰롭고 타당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이다. 특히 검사는 초기면담이나 개인사 자료 등에 의해 쉽게 얻을 수 없는 부분까지 알 수 있게 해주므로 그만큼 청소년의 특성이나 문제를 보다 명료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간 청소년 상담에서 검사는 주로 청소년의 문제를 진단하는 정보제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검사를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때는 그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김재환, 2001).

여기에는 검사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검사의 선택, 그리고 점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검사 결과를 해석한데서 기인한다. 이는 검사 자체의 문제이기보다 오히려 검사 오용에서 비롯된 것이다(안창규, 박성미, 1999; Brown & Brooks, 1991).

이러한 검사 오용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Zunker(1994)는 검사의 선택, 실시 및 채점, 해석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상담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때 내담자의 적극적 참여를 격려하고, 이와 아울러 '이해'와 '통합'의 원리(Tinsley & Bradley, 1986)에 기초한 검사결과를 전달한다면, 검사 오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내담자의 자기자각과 자기동기화를 쉽게 유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관점을 반영한 Finn(1996)은 실제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MMPI 검사시행과정에서 치료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 문제를 조력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검사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검사과정 자체가 한 차원 높은 상담과정으로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상담에서 검사 활용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일각에서는 검사상담의 개념적 모델을 제안한 바 있으나(안창규, 박성미, 1999; 임호찬, 1999; 윤재호, 신혜린, 2004; Zunker, 1994) 그 경험적 타당성을 밝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 조력을 위한 기법으로서 검사상담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와 아울러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면담상담과 그 효과를 비교해봄으로써 검사상담의 타당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검사상담의 구성 및 실시절차

1. 검사상담의 구성

청소년 문제를 조력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검사상담을 구안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상담에서 검사의 이점을 고찰하여 검사상담의 이론적 가능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상담에서 검사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김계현, 황매향, 선혜연, 김영빈, 2004; Finn, 1996; Watkins, 1990; Zunker, 2002)에 의하면, 검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초기면담이나 개인사 자료 등에 의해 쉽게 얻을 수 없는 부분까지 알 수 있게 해주어 내담자의 특성이나 문제를 명료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임호찬, 1999; Watkins, 1990). 즉 검사는 면담 처럼 하나의 심리적 현상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한 두 번 정도 묻고 이에 대한 반응을 통해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즉 하위척도의 문항 수 만큼의 질문

을 함으로써 내담자가 제기한 문제의 성질과 정도, 내담자의 성격특성과 행동양식, 내담자의 대처방식과 방어기제 등을 객관적이고 신뢰롭게 파악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내담자 문제를 조력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기법의 선정은 물론 기존 상담에서 면접만을 통한 상담자의 탐색적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담에서 검사 활용을 기피하는 입장(김성래, 2001; 김재환, 2001)에 의하면, 검사가 내담자의 문제를 명료화시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먼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문항에 대하여 내담자의 응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는 오류변량으로 작용하여 검사결과에 타당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검사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검사의 시행(예, 지능검사를 학업성취 예언 변인으로 사용)은 기본적으로 내담자 문제를 확인할 수 조차 없다고 본다.

이러한 비판은 상담에서 검사 활용에 있어 종종 제기되는 문제이다. 즉 검사만능주의에 기인하여 검사 시행에서 내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이나 행동을 불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검사결과를 고정된 관점에서 융통성 없이 점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석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는 검사 자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검사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관련된 검사방법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안창규, 박성미, 1999).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성에 기인하여 상담에서 검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일각에서는 내담자의 입장을 중요시하는 윤리적 측면의 검사시행과, 그 시행 절차를 치료적 만남(Finn, 1996; Zunker, 2002)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전반적인 검사 시행과정인 검사의 선정, 실시 및 해석의 과정에 내담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를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게 한다면(Watkins,

1990), 내담자는 자연스럽게 검사시행과정에 객관적인 자기보고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검사결과를 전달받는 동안도 상담자의 일방적인 결과 전달이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분석 및 변화를 구성하도록 격려한다.

이와 아울러 기준을 참조하여 검사 점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 이것을 이전에 수집한 내담자에 관한 다른 정보들과 유의하게 '통합'하여 역동적인 관점에서 결과를 전달한다면(Tinsley & Bradley, 1986), 내담자는 검사시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알아가려는 자기탐색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한다(Peavy, 1996). 이러한 내담자의 자기탐색은 결과적으로 자기변화를 위한 시도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면담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 것이다(윤재호, 신혜린, 2004).

이상으로 상담에서 검사 활용방법에 대한 제고 및 검사의 긍정적 측면(안창규, 박성미, 1999; Finn, 1996; Zunker, 1994)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 면담 보다 검사를 활용한다면,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를 명료화시키고, 자기탐색 및 그로 인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밝히는 검사상담의 개념적 모델(안창규, 박성미, 1999; 임호찬, 1999; 윤재호, 신혜린, 2004; Zunker, 1994)을 토대로 청소년 문제를 조력하는 검사상담 과정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욕구는 무엇이며, 청소년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사용될 검사의 목적은 무엇이며, 상담에서 검사 정보의 효과적인 통합은 어떻게 구성되며, 검사 정보는 청소년에게 어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Brown & Brooks, 1991).

이러한 기본 전제 하에 청소년 문제 조력을 위한 검사상담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절차로 구성할 수 있다. 1단계는 초기면접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간 충분한 라포형성을 통해 내담자의 욕구

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한 검사를 선정한다(임호찬, 1999). 이때 검사의 선정은 내담자의 적극적 참여를 기초로 내담자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담자와 협동작업으로서 진행한다(Peavy, 1996; Watkins, 1990). 2단계는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한 후, 해석준비를 한다(Tinsley & Bradley, 1986). 3단계는 검사결과 전달의 과정에서 단지 점수에 의존한 것이 아닌 '이해'와 '통합'의 원리를 적용하여 검사결과를 전달한다. 4단계는 보다 심층적인 상담의 과정으로 해석상담을 진행한다(윤재호, 신혜린, 2004). 5단계는 상담종결의 과정을 통해 그 동안의 내담자의 자각을 토대로 변화를 유도하며 상담 밖 장면에서의 학습전이가 발생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김계현 등,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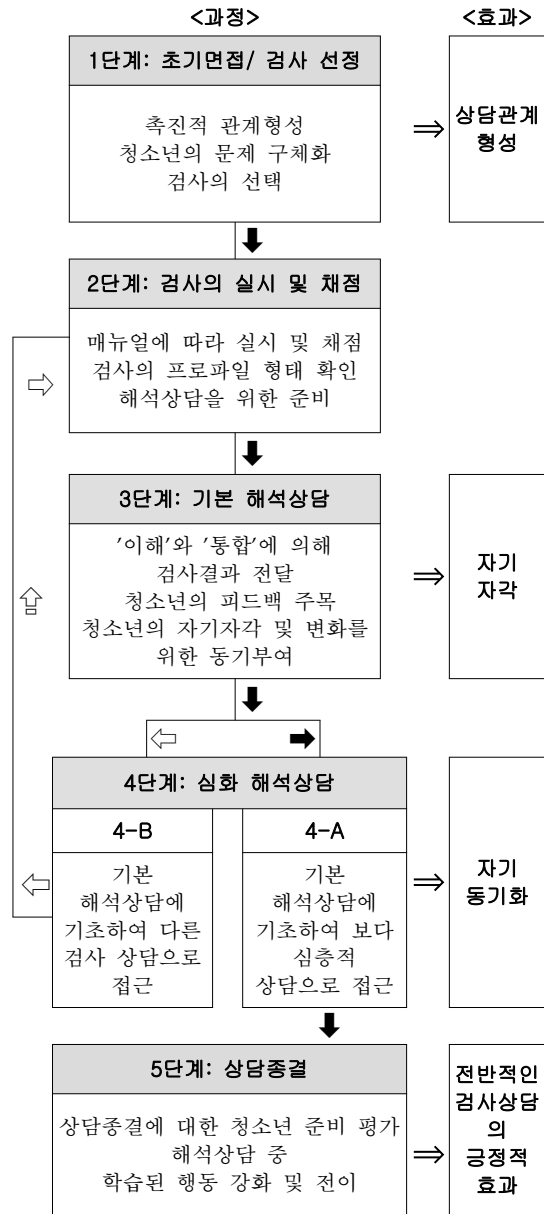
2. 검사상담의 실시절차

청소년 문제를 조력하기 위한 검사상담의 실시절차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가. 1단계: 초기면접 및 검사의 선정

상담자는 초기면접에서 청소년과의 촉진적인 관계형성을 한 후, 청소년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문제를 구체화하며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검사를 선택한다(임호찬, 1999; 최동욱, 김재환, 1990).

청소년 문제별(박병희 등, 1996)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 검사에 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청소년문제는 진로문제, 학업문제, 성격·적응·정신건강 문제로 크게 대별할 수 있으며, 각 개별 문제의 고유 특성(예, 진로선택 및 결정 문제이거나 진로미성숙의 문제인 경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검사들은 물론 제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청소년 내담자가 진로선택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진로탐색검사 혹은 전공탐색검사를, 학업문제가 있는 경우 학업동기검사를, 심리적 불균형의 문제가 있는 경우 MMPI 혹은 다요인인성검사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 청소년 문제 조력을 위한 검사상담 과정 및 효과 내용

여기서 <표 1>의 내용은 상담자가 검사를 활용한 상담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도움이 될만한 참조체계를 제시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청소년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을 통해 검사를 선정해야 하

<표 1> 청소년 문제 조력을 위한 검사상담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검사들

청소년 문제	검사명	대상	저자	발행처
진로문제	진로탐색검사	중·고	안창규	한국가이던스
	전공탐색검사	고등학생	안창규, 안현의	한국가이던스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중·고	노동부	노동부
	CTI진로사고검사	고·대학생, 성인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한국가이던스
	개인가치관검사	중·고	황응연, 이경혜	K. T. C
	대인가치관검사	중·고	황응연, 이경혜	K. T. C
	직업카드	초등학생~대학생	김봉환, 최명운, 조유미	학지사
학업문제	진로성숙검사(CMI)	청소년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한국교육개발원
	학업동기검사(AMT)	초등학생~대학생	김아영	학지사
	학습기술검사(LST)	초등학생~고등학생	변영계, 김석우	학지사
	학습흥미검사	초 4·6, 중·고등	조봉환, 임경희	한국가이던스
성격, 적응, 정신건강 문제	학습방법진단검사	초등2년~고등학생	한국심리자문연구원	한국가이던스
	MBTI	청소년, 성인	김정택, 심혜숙	한국심리검사연구소
	MMPI	청소년, 성인	정범모, 이정균, 진위교	한국가이던스
	성격평가 질문지(PAI)	청소년, 대학생, 성인	김영환 외	학지사
	아이젠크 성격검사	9세 이상	이현수	학지사
	상태-특성 불안검사	16세 이상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학지사
	특수인성검사A	초등3년~고등학생	박병관 외	한국가이던스
	자아가치관	중학생 이상	김정규	한국가이던스
다요인 인성검사(16PF)	중학생 이상	염태호, 김정규	한국가이던스	

주. 이 정보는 2006년 10월을 기점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개발된 검사는 제외되었음.

는 유의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2단계: 검사의 실시 및 채점

검사의 실시 및 채점은 사용될 검사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이나 매뉴얼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최적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김계현 등, 2004).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검사 실시 전, 청소년으로 하여금 불안을 감소시키고, 어떤 형태로든 속이기를 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 채점에 의해 결과가 제시되면 프로파일 형태를 확인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 현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로 인해 상담자는 검사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해석상담 전략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다. 3단계: 기본 해석상담

기본 해석상담은 검사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인 검사결과를 전달하는 단계이다. 이는 '이해'와 '통합'의 원리에 의해 검사의 결과를 심리측정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내담자가 처해있는 개인적, 상황적 요인들을 '통합'시켜 보다 역동적인 관점에서 검사의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다(Tinsley & Bradley, 1986). 이때 상담자는 청소년을 해석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청소년의 피드백에 주목하고, 또한 청소년 내담자의 자기자각 및 자기변화를 격려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검사해석에서 비롯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라. 4단계: 심화 해석상담

심화 해석상담에서는 기본 해석상담의 절차가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되는 상담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형태(A 혹은 B)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하나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검사를 실시 및 채점, 해석상담, 심층상담, 상담종결로 이어지는 경우(1-2-3-4A-5)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앞에서의 절차로 검사상담과정을 진행하던 중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한 경우, 2단계로 이동하여 다른 검사를 선정, 실시 및 채점, 기본 해석상담, 심화 해석상담, 상담종결로 이어지는 경우(1-2-3-4B-5)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내담자의 욕구에 따라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사상담을 운영하던 중 진로문제가 성격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그림 1>에서 보듯이, 4단계인 심화 해석상담: B 형태로서 2단계인 검사의 실시 및 채점 단계로 다시 이동하여 성격문제를 확인하고 조력할만한 검사를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을 통해 선정하고, 앞에서 살펴본 동일한 절차에 따라 검사상담을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검사상담 과정은 단계적이기 보다는 순환적이며 연속적인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Zunker, 1994)는 특징이 있다. 이는 청소년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해 보다 융통적인 상담기법으로서 검사를 활용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김혁곤, 송현중, 1990; 윤재호, 신혜린, 2004).

마. 5단계: 상담 종결

상담을 끝맺는 일은 상담을 시작하는 것 만큼 중요하다(김계현 등, 2004). 효과적인 상담종결을 위한 지침으로는 종결과정 자체를 하나의 상담단계로 다룸으로써 청소년 내담자들이 종결 문제를 중요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종결에서는 이에 대한 청소년 내담자의 준비도를 평가하고 특히 해석상담을 통해 학습된 내용들을 강화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구성해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조력을 위한 검사상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U시에 소재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진로문제를 의뢰한 청소년(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20명 중 실험집단에 10명, 비교집단에 10명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실험집단 10명을 대상으로는 검사상담이 제공되었고, 비교집단 10명을 대상으로는 면담상담이 제공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실험집단 10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상담에서는 <표 1>에서 제시한 관련 검사 중 진로탐색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회(매 회기 당 1시간씩), 전체 5회기의 검사상담을 실시하였다. 비교집단 10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상담 역시 1주에 1회(매 회기당 1시간씩), 전체 5회기 단기상담의 형태로 실시하였다. 상담 진행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소속된 전임상담원 4명이 실시하였는데, 전임상담원 4명(본 연구자로부터 16시간 이상의 검사상담 Workshop 과정을 이수한 자) 중 2명은 검사상담에, 나머지 2명은 면담상담으로 청소년 내담자와의 일대일 상담으로 실시하였다. 검사상담과 면담상담은 2006년 6월 첫째 주 부터 진행되었으나 두 가지 형태의 상담 모두 일대일 상담의 특성상 모든 연구대상자들의 상담이 종료되는 시점은 11월 둘째 주이었다(1명의 상담자는 1주에 이틀 동안 2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각각 상담하였다).

2. 측정도구

가. 과정변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조력을 위한 검사상담이 면담상담 보다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변인으로 상담관계형성, 자기자각, 자기동기화를 측정하였다. 첫째, 상담관계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rett과 Lennard(1962)가 개발한 상담관계질문지 중 하위척도인 공감적 이해 문항을 정방자(198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85). 이는 검사상담을 통해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에 정서적 지지를 받은 정도를 확인

하는 것으로 1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5점 척도). 본 연구에서 상담관계형성의 신뢰도 α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자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미와 이순화(2003)가 개발한 진로결정검사 중 하위척도인 자기자각 문항을 사용하였다(.89). 이는 검사상담을 통해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을 이해한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5점 척도). 본 연구에서 자기자각의 신뢰도 α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동기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양명희(2000)가 개발한 자기조절 학습의 하위척도 중 자아효능감 문항(.88)을 상담 장면에서 응용하였다. 이는 검사상담에 의해 자기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하는 17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5점 척도). 본 연구에서 자기동기화의 신뢰도 α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나. 결과변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조력을 위한 검사상담이 면담상담보다 의도된 목적에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결과변인으로 진로정체감을 측정하였다. 진로정체감은 London(1997)의 진로동기화 검사 중 진로정체감 하위척도(.75)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안정성 .73, 목표지향성 .80, 확신성 .84)은 17문항(.7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안정성 .79, 목표지향성 .82, 확신성 .85)의 신뢰도 α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IV. 연구 결과

1. 검사상담 과정의 효과 분석

가. 상담관계형성

청소년 내담자와의 상담관계형성에 있어 검사상담이 면담상담보다 더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관계형성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상담관계형성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상담관계형성 효과 검증을 위한 공변량 분석

집단	사례수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교정평균 (표준오차)
실험	10	27.90(4.50)	30.20(3.42)	29.87(.77)
비교	10	26.80(2.57)	27.00(2.94)	27.32(.77)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사전검사	83.38	1	83.38	
집단	31.84	1	31.84	5.40
오차	100.21	17	5.89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변량 분석(ANCOVA)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상담관계형성(F=5.40, p>.01)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내담자와의 상담관계형성에 있어 검사상담과 면담상담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자기자각

청소년 내담자의 자기자각을 돕는데 검사상담이 면담상담보다 더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자각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자기자각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공변량 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자기자각 효과 검증을 위한 공변량 분석

집단	사례수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교정평균 (표준오차)
실험	10	42.80(6.46)	50.40(5.35)	51.44(.95)
비교	10	45.80(3.91)	46.60(4.98)	45.55(.95)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사전검사	251.13	1	251.13	
집단	159.94	1	159.94	18.16**
오차	149.66	17	8.80	

* p<.05, ** p<.01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변량 분석(ANCOVA)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자기자각($F=18.16$, $p<.01$)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간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보면,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검사상담이 면담상담보다 청소년 내담자의 자기자각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 자기동기화

청소년 내담자의 자기동기화에 있어 검사상담이 면담상담보다 더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동기화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자기동기화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변량 분석(ANCOVA)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자기동기화($F=15.49$, $p<.01$)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간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보면,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검사상담이 면담상담보다 청소년내담자의 자기동기화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자기동기화 효과 검증을 위한 공변량 분석

집단	사례수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교정평균 (표준오차)
실험	10	46.70(5.12)	52.90(5.34)	51.18(1.18)
비교	10	42.50(5.48)	42.60(5.77)	44.31(1.18)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사전검사	336.20	1	336.20	
집단	201.48	1	201.48	15.49**
오차	221.09	17	13.00	

* $p<.05$, ** $p<.01$

2. 검사상담 결과의 효과 분석

가. 진로정체감

청소년 내담자가 의뢰한 상담 목적 달성에 있어 검사상담이 면담상담 보다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정체감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진로정체감 효과 검증을 위한 공변량 분석

집단	사례수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교정평균 (표준오차)
실험	10	44.70(8.05)	59.00(8.35)	59.41(1.71)
비교	10	45.70(6.46)	46.70(7.76)	46.28(1.71)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사전검사	673.37	1	673.37	
집단	858.49	1	858.49	29.38**
오차	496.72	17	29.21	

* $p<.05$, ** $p<.01$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변량 분석(ANCOVA)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진로정체감($F=29.38$, $p<.01$)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간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보면,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검사상담이 면담상담보다 청소년 내담자의 의뢰한 상담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 진로정체감 하위영역별 사후-사전점수 차이 분석

검사상담의 전반적 효과로서 진로정체감의 향상의 정도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정체감 하위영역별 각 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 점수를 감하여 그 차이를 다변량 분석

(MANOVA)에 의해 확인하였고,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있다.

<표 6> 두 집단의 진로정체감 하위영역별 사후-사전점수 차 분석

진로정체감	Wilk's Lamda	제곱합	다 변 량		단 변 량	
			F	자유도	F	자유도
안정성		84.05		5.59		1
목표지향성	.301	68.45	12.37**	3	15.53**	1
확신성		151.25		27.64**		1

* p<.05, ** p<.01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안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지향성, 확신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정체감의 하위영역에서 목표지향성, 확신성에서만 향상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 내담자와의 상담관계형성에 있어 검사상담이 면담상담보다 더 효과적인가를 알아본 결과, 검사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면담상담에 참여한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상담, 면담상담 모두 청소년 내담자와의 상담관계형성은 상담효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사상담과 면담상담 모두 상담관계형성의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검사상담과 면담상담 모두 청소년 내담자와의 상담관계형성에 있어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 내담자의 자기자각을 돕는데 검사상담이 면담상담보다 더 효과적인가를 알아본

결과, 검사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면담상담에 참여한 비교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상담이 면담상담보다 청소년 내담자의 자기자각에 효과적이라는 Watkins(1996)의 관점, 안창규와 박성미(1999)의 관점, 임호찬(1999)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검사상담이 청소년 내담자의 자기자각을 돕는데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내담자의 자기동기화에 있어 검사상담이 면담상담 보다 더 효과적인가를 알아본 결과, 검사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면담상담에 참여한 비교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윤재호와 신혜린(2004)의 관점, Zunker(1994)의 관점, Finn(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검사상담이 청소년내담자의 자기동기화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 내담자가 의뢰한 상담 목적 달성에 있어 검사상담이 면담상담 보다 더 효과적인가를 알아본 결과, 진로정체감에 있어 검사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면담상담에 참여한 비교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상담이 면담상담보다 청소년 내담자의 의뢰한 상담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정체감(안정성, 목표지향성, 진로결정 확신)의 하위영역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사전 차이 분석의 결과, 진로정체감의 수준 향상은 목표지향성과 확신성의 향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검사상담의 효과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던, 즉 검사시행 과정을 한 차원 높은 상담과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Zunker(1994)의 견해를 지지함과 아울러 Finn(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청소년 문제를 조력하기 위해 검사상담이 효과적이라는 개념적 모델만이 제시되었고 경험적 검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매우 의의

가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를 조력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검사상담은 면담상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사상담이 제공되었던 실험집단과 면담상담이 제공되었던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에서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해보면, 상담관계형성, 자기자각, 자기동기화, 진로정체감 등 모든 영역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향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보면 검사상담이 면담상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면담상담이 상담의 전반적인 효과에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즉, 면담상담도 청소년 문제를 조력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를 조력하는데 있어 검사상담이 면담상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청소년 문제를 조력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검사상담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검사상담을 제시하면서, 진로문제에 국한하여 검사상담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의 학업문제, 성격 및 정신건강의 문제도 과연 검사상담이 면담상담보다 효과적이지는 경험적으로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으로서 남자 청소년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므로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사상담을 실시하였을 때도 같은 결과도 출될지는 추후연구를 통해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친화동기가 높아, 면담상담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구본용, 청소년과 상담. 1999년 상담심리사 수련교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pp. 89~104, 1999.
- 김계현·황매향·선혜연·김영빈, 상담과 심리검사. 서울: 학지사. 2004.
- 김미영·김경하·전우병·김시업, 인지면담기법이 아동과 성인의 사건회상 정확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18(2), pp. 137~151, 2004.
- 김성래, 상담에서 인터넷 심리검사의 활용 가능성. 인하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21, pp. 165~177, 2001.
- 김재환, 상담에서의 심리검사의 활용. 대학생생활연구, 19, pp. 1~21, 2001.
- 김혁곤·송현중, 심리검사 해석 상담의 과정. 순천대학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9, 1, pp. 1~7, 1990.
- 박병희·장경준·신지용, 주제정의검사를 사용한 비행청소년의 도덕발달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5(3), pp. 594~602, 1996.
- 박성미,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상태에 따른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6(1), pp. 11-20, 2004.
- 박성미·이순화, 고등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진로결정검사 개발. 부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2003.
- 양명희, 자기조절학습의 모형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윤재호·신혜린, 심리검사 해석상담 중 내담자의 상담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생활상담실. 인간이해, 25, pp. 1~31, 2004.
- 이재분·현주·박효정, 학교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

- 고서, 2003.
- 임호찬, 심리검사를 위한 초기상담 방략에 대한 고찰. *지성과 창조*, 2, pp. 147~179, 1999.
- 정방자, 정신역동적 상담과정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변호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최동옥 · 김재환, 초기상담과 심리검사.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연구*, 8, pp. 123~132, 1990.
- 홍용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교육과학연구* 28, pp. 113~129, 1999.
- 안창규 · 박성미,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를 활용한 상담모형. *한국진로상담학회*, 4(1), pp. 21~52, 1999.
- Brown, D., & Brooks, L., *Career Counseling Techniques*. MA: Allyn and Bacon, 1991.
- Dewald, P. A., *Psychotherapy: A dynamic approach*(2nd Ed.). New York: Basic Books, 1969.
- Finn, S. E., *Using the MMPI-2 as a Therapeutic Interven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 London, M., London's Career Motivation Theory: An Update on Measurement and Researc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pp. 61~80, 1997.
- Peavy, V. R., Constructivist career counselling and assessment. *Guidance & Counseling*, 11, 3, 1996.
- Tinsley, H. E. A., & Bradley, R. W., Test interpret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 pp. 462~466, 1986.
- Watkins, C. E., An Integration and Perspective on Using Tests in Counseling. In C. E. Watkins. *Testing In Counseling Practice*. New Jersey: LEA, 1990.
- Zunker, V. G., *Using Assessment Results for Career Development*.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4.
- Zunker, V. G.,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2002.